

## 16. 各種疾患에 있어서 Radioimmunoassay에 의한 HBsAg의 檢出率

### Studies on HBsAg by Radioimmunoassay in Various Diseases

延世醫大 內科  
康珍敬·崔興載  
藥理學  
柳京子

1965年 Blumberg가 Australia antigen(HBsAg)을 發見한 以來 HBsAg 檢出이 virus 肝炎의 病因, 臨牀 經過 및 診斷에 있어서 필수적인 重要的 檢査로 되어 있다.

HBsAg의 檢出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二重免疫 擴散法 및 counterimmunoelectrophoresis 등은 檢査法이 간편하고 염가이어서 널리 利用되고 있으나 그 예민도가 낮은 短點이 있다. 反面에 radioimmunoassay는 그 예민도가 가장 높아서 double diffusion法의 1,000倍이나 그 檢査法이 복잡하고 高價이어서 그 利用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RIA에 의한 HBsAg 檢出成績의 報告가 별로 없다.

演者 등은 1976년 8월부터 1977년 7월까지의 肝疾患患者 117例, 慢性腎疾患患者 16例, 其他疾患 28例 및 供血者(獻血) 182例, 總 353例에 대해 HBsAg을 RIA法으로 측정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肝疾患, 慢性腎疾患 및 其他疾患患者 171例였으며 이들은 모두 micro-Ouchterlony法으로 HBsAg이 陰性이었으며 供血者(獻血) 182例에 대해서는 HBsAg 發見頻度를 micro-Ouchterlony, counter-immunoelectrophoresis 및 RIA法에 의해 比較하였다.

① HBsAg陽性率은 慢性活動肝炎에서 71.4%로 가장 높았으며 肝硬變症에서 60%, 肝癌에서 51.2%, 急性바이러스性肝炎에서 47.5% 그리고 慢性特續性肝炎에서 44.4%를 나타냈다.

2) 各肝疾患群에서의 HBsAg 陽性患者에 있어서 RIA titer의 平均値를 比較하면 急性바이러스性肝炎(5,012.8cpm)에서 가장 높았으며, 慢性特續性肝炎(4171cpm), 肝硬變症(3892.1 cpm), 慢性活動性肝炎(3656 cpm), 肝癌(3217.5 cpm)의 順이었다.

3) HBsAg陽性인 肝癌患者에서의 AFP가 또한 陽性으로 檢出된 例는 29.2%였으며, AFP가 陰性으로 나타난 것은 21.9%였고, HBsAg가 陰性인 患者에 있어

서 AFP가 陽性으로 나타난 것은 21.9%, AFP가 陰性인 것은 26.8%였다.

4) 慢性腎臟炎患者 16例에 있어서 HBsAg 陽性率은 56.3%였으며 그中 hemodialysis 받은 患者 6例中 4例(66.7%)에서 HBsAg이 陽性으로 나타났다.

5) 供血者(獻血)에 있어서 HBsAg 陽性率은 RIA法으로는 6.1%였으며 同一한 血清으로 시행한 CEP法으로는 3.2%, micro-Ouchterlony法으로는 2.7%를 나타내 RIA法이 約 2-2.5倍 높았다.

## 17. 면역학적 기전으로 생기는 몇가지 질환과 신이식 환자에서의 HBsAg과 Anti-HBs에 대한 관찰(예보)

### Study of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d Antibody among Patients with Various

#### Immune-Related Diseases and Renal Transplantation

가톨릭의대 내과

이오정·한명규·정규원·선희식  
박두호·정환국

교원성 질환 또 몇가지 혈액질환 및 신증후군 등의 질환군은 아직까지 그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추측되고 있어 원인 규명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이식 환자에서 B형 간염 항원의 빈도 및 신이식 후의 예후에 대하여 비교 관찰한 보고가 별로 없었다. 연자들은 1969년 3월부터 1977년 8월 말까지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에서 동종 신이식수술을 시행한 26예 중 추사가 가능했던 환자 20명과 신생검을 시행했던 신증후군 환자 14명,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4예 류마치양 관절염 2예, 전신성 홍반성 낭창 2예 및 기타 3예 총 45예의 환자에 radioimmunoassay(Ausria I, Ausab) 방법에 의하여 HBsAg과 anti-HBs 검사를 시행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1) 신이식 환자 20예는 남자가 18예, 여자가 2예 이었고, 연령 분포는 21세부터 59세까지로 평균 연령이 38.8세이었다. 신이식 전 시행한 HBsAg의 양성율은 14예(60%)이었다. 이중에서 HBsAg과 anti-HBs가 전부 양성인 예가 1예이었고 전부 음성이었던 예가 1예 있었다. 이는 신이식 전 장기간의 혈액투석시 HBsAg의 감염과 관계된다고 사료되며 신이식 후의 예후와 HBsAg과의 관계는 관찰중이다.

2) 신증후군 환자 14예에 대한 HBsAg의 양성은 7예(50%)이었고, anti-HBs는 5예(35.7%)에서 양성이었다. 그중에서 특발성 신증후군 11예에 대한 빈도는 HBsAg양성이 4예(36.4%), anti-HBs양성 5예(45.5%), HBsAg과 anti-HBs 전부 양성인예가 2예(18.2%)로 나타났으며 만성간질환에 합병된 신증후군 3예에서는 전예가 HBsAg 양성이었다고, anti-HBs는 전부 음성이었다. 따라서 신증후군 환자에서는 정상인에서보다 훨씬 높은 양성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증후군에 대한 면역학적 결핍으로 인한 HBsAg 감염에 의한 것인지 또는 HBsAg-Ab complex deposition으로 인한 이차적 신증후군인지는 앞으로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기타 질환군 11예중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1예에서만 HBsAg이 양성이었으며 Anti-HBs 양성은 8예로서 과거에 HBsAg의 감염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18.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의 비장섭취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 방사선과

이영호 · 김귀언 · 박창윤

인체의 비장은 신티레이온 스캐닝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 비장섭취가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 비장섭취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으며, 더우기 이런 비장섭취의 정도가 간주사상의 판독에 있어서 보조적 도움이 되어 왔었다.

물론, Goswitz는 정상에서도 비장섭취가 나타나는 것이 5%라고 보고하였으나, Christie등은 간경변증에서는 비장섭취가 간기능저하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한 바 있으며, 그의 비장자체의 질환, 혈액학적 병변 또한 비장섭취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시사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 비장섭취가 보여질때, 어떤 병변들이 나타났으며, 또 어느 병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나를 조사하여 보았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본 병원 방사선과 동위원소

실에서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하여 실시한 간주사상중, 비장섭취가 나타난 총 백오십예의 간주사상을 대상으로 입상기록을 조사하여 병리 및 수술에 의해 확진이 된 예를 중심으로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병리 및 수술에 의해 확진이 된 총 이십칠예 중에서 간경변증이 십사예로 오십이 퍼센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염, 간농양, 그리고 간암의 간경변증을 제외한 만성간질환들이 각각 3예로 십일 퍼센트씩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 악성 임파종과 담낭염을 동반한 담석 및 담도 결석증이 각각 2예와 1예로 관찰되었다.

저자들은,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 비장섭취가 보여지는 것을 관찰한 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19. 간 농양에서의 간주사

(Liver Scan in the Hepatic Abscess)

鄭俊基 · 金明德 · 洪基燾 · 金柄國 · 高昌舜

간농양은 일반적인 임상증상이나 이학적 소견, 방사선 검사, 검사실적 소견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질환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肝走査法에 의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특히 肝走査法の 안정도 및 검사의 신속성이 간농양의 조기진단 요구와 일치된다.

演者들은 1971년 3월부터 1977년 9월까지 서울대 학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간농양 환자에서 肝走査의 진단적 의의와 임상과의 관련성을 보았다.

肝走査는  $^{198}\text{Au}$  0.2~0.3 $\mu\text{Ci}$  혹은  $^{99\text{m}}\text{Tc}$  0.1 mCi 靜注後 scintillation camera로 시행하였다.

농이 chocolate color 내지 anchovy paste樣을 띄는 예는 아메바성 간농양으로 분류했고 이런 예에서 배양상 아메바 균이 검출되거나 혹은 chocolate color pus와 전형적인 화농성 농이 나오는 경우는 혼합성으로 분류했다. 농이 황색 내지 황녹색인 경우에는 Gram염색 및 농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화농성으로 분류하였다.

간농양 진단이 내렸던 87명의 환자중 수술이나 천자에 의해 농이 확인된 44예를 고찰하였다.

1) 총 44예중 아메바성 간농양이 19예였고, 화농성 간농양이 18예, 혼합성이 7예 이었다.

2) 연령 및 성별분포는 30대(34%), 40대(30%)가 제일 많았고, 남자가 34예, 여자가 10예이었다.